

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통해 본 양국 관계 전망

성동기 인하대학교 프린티어학부 교수(✉ tassdk@hanmail.net)

주요내용

- ▶ 2017년 4월 4~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음.
- ▶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이미 친러 성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이를 확인하는 기회로 여겨졌음.
- ▶ 중앙아시아 5개국의 전체 인구에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즈베키스탄은 독립부터 미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극단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.

1. 이슈 현황

▶ 2017년 4월 4~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있었음¹⁾.

□ 2016년 12월 14일에 우즈베키스탄의 2대 대통령에 취임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줌.

-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가 투르크메니스탄이었으며, 두 번째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이었음.
-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의 외교 정책은 카리모프 정권하에서 반목하고 있던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었음.
- 취임 이후 역외 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방문하는 국가가 러시아인데 이것은 그의 외교 정책 방향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임.
- 대통령 선거 당시에 외교 부문의 공약에서는 카리모프 정권의 외교정책을 계승한다고 발표했으나,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의 외교 노선이 친러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함.

1) "Uzbek President Mirziyoyev Makes State Visit to Russia"(2017. 4. 7), 온라인 기사, (검색일 : 2017. 5. 8)

- 양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대표적인 아젠다는 다음과 같음²⁾.
 -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된 지역 안보 문제
 - 양국의 국방 및 경제 교류 활성화
- 우즈베키스탄은 카리모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러시아와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와 확실하게 관계를 재정립하고, 러시아와 군사 및 무역 교류를 확대하려고 함.
- 이번 회담을 통해서 러시아는 스스로 친러 성향을 드러내고 있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정권을 확실하게 러시아의 편으로 잡고자 함.

2. 원인과 분석

▶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이미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이를 확인하는 기회로 여겨졌음.

-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수행한 25년간의 대외정책 노선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, 첫 번째 시기가 친서방, 반러 노선이었음.
 - 소비에트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과거 소비에트연방 공화국들은 체제 전환기로 인해서 혼란한 시련을 겪고 있었음.
 - CIS 회원국들의 리더이자 맹주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러시아가 체제 전환기로 발생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IS 회원국들을 지원할 수 없었음.
 -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와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했지만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자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급박했음.
 - 카리모프 대통령은 체제 전환기에 발생한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서방 노선을 구축하게 되었음.
 -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친서방, 반러 국가로 변함.
 - 2000년에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푸틴이 가장 먼저 방문한 국가가 우즈베키스탄이었음.
 - 그러나 카리모프 정권은 그의 방문 이후에도 2001년 9.11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할 때 자국의 공군기지를 임대해 주는 등 친서방, 반러 대외정책 노선을 유지하였음.
- 카리모프 전 대통령이 수행한 두 번째 대외정책 노선은 친러, 반서방 노선이었음.

2) "Vladimir Putin will meet with President of Uzbekistan Shavkat Mirziyoyev on April 5", (2017. 4. 5), 러시아 대통령실, 검색일(2017. 5. 8)

- 2004년에 키르기스스탄에서 발생한 레몬 혁명(혹은 튜립혁명)은 카리모프 정권의 대외정책 노선을 급격하게 변화시킴.
 - 아카예프 초대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자국민들의 저항으로 하야를 당한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을 의심하기 시작함.
 - 그런데 다음 해인 2005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 동부지방에 위치하는 안디잔에서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는데,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무력으로 시위대를 잔혹하게 진압하였음.
 -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어났는데, 미국은 우즈베키스탄이 가지는 전략적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결국에는 카리모프 전 대통령을 비난하였음.
 - 이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시작함.
 -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자국이 미국에 제공했던 공군기지에서 미군이 철수할 것을 통보하였음.
 -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의 거리를 두면서 러시아와 급속히 관계를 회복하려고 시도하였음.
 - 그러나 카리모프 전 대통령은 사망 직전까지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 지지를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음.
-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친러 성향의 대외정책 노선을 구축하려고 하는 이유
-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무엇인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아젠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.
 -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우즈베키스탄은 미국에 제공할 것을 찾지 못함.
 - 중국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투자국이며 지원국이기 때문에 가장 수월하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임.
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과의 정치적, 군사적 교류를 확대시키려는 의도는 없음.
 - 중국은 과거 중앙아시아를 침략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역시 중국과의 정치적, 군사적 교류를 원하지 않고 있음.
 - 러시아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를 식민 지배한 대표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우즈베키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정치적, 군사적 교류를 확대시키지 않아야 하지만 중국과는 다른 정책을 펴고 있음.
 - 이미 러시아는 1992년부터 1997년 동안 발생했던 타지키스탄 내전에 개입하여 타지키스탄 정부를 지켜 주었으며, 여전히 타지키스탄에 러시아 군대가 주둔하고 있음.
 - 무엇보다도 자신들을 식민 지배했던 러시아지만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러시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 정치적, 군사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가장 좋은 차선책으로 인식하고 있음.
 -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총리 시절부터 러시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반면에 미국, 중국과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없고 직접적으로 양국과의 교류에 개입한 적도 없음.

- 특히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러시아 재벌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, 그의 부인인 이리나 비네르는 푸틴 대통령의 연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를 그에게 소개한 인연을 가지고 있음.
-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-알리셰르 우스마노프-이리나 비네르-알리나 카바예바-푸틴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가 사실상 우즈베키스탄의 대외정책 노선을 결정지었음.
- 따라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의 친러 성향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음.

3. 전망과 시사점

▶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 대외정책 노선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.

- 러시아의 농산물 공급지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바뀌고 있음.
 - 현재 우즈베키스탄 시민들은 시장이나 마트에서 값싸고 맛있는 채소와 과일을 찾기 힘들다고 함.
 - 값싸고 좋은 채소와 과일들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징발하여 러시아로 먼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채소와 과일을 비싸게 구입하고 있음.
 - 러시아는 위와 같이 자국으로 채소와 과일을 보내는 동시에 우즈베키스탄의 농토를 임대하여 직접 재배하여 보내고 있음.
 - 이를 위해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국의 주요 수출 작물인 면화재배지를 줄이는 법령을 통과시켰음.
 - 알리셰르 우스마노프를 통해서 러시아 기업체들이 대거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하여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-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 대외정책 노선으로 인해서 주요 강대국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.
 - 미국은 현재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은 없지만 러시아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의 노선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.
 - 트럼프의 취임으로 미국이 고립주의 대외정책을 추진한다고는 하더라도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안정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할 것임.
 - 주지하는 바와 같이,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현재 너무나도 우호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강하게 견제할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됨.
 - 그러나 미국에 대항하는 양국의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양국이 협상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됨.
 - 결과적으로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는데 있어 기업

체들에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. **EMERiCs**

참고문헌

- Uzbek President Mirziyoyev Makes State Visit to Russia(2017. 4. 7), The Diplomat, <http://thediplomat.com/2017/04/uzbek-president-mirziyoyev-makes-state-visit-to-russia/>(검색일: 2017. 5. 8),
- "Vladimir Putin will meet with President of Uzbekistan Shavkat Mirziyoyev on April 5", (2017. 4. 5)러시아 대통령실, <http://en.kremlin.ru/events/president/news/54168>(검색일: 2017. 5. 8).

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